

중국의 일본연구 현황과 전망

-특히 일본어 연구와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쉬이핑

1. 과거의 연구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이래, 오십 여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이 사이에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 연구도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이 오십 여년간을 되돌아볼 경우,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전반의 30여 년간, 두 번째 시기는 후반의 20여 년간을 하나의 단락으로 한다. 첫 번째 시기(1949~1978)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으로부터 중국 공산당 제 11회 삼중전회(三中全會)가 거행되고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 시기를 더욱 면밀히 나누면, 또 50년대부터 60년대의 전반까지와 60년대의 후반부터 70년대의 후반까지의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신중국의 성립으로부터 소위 『문화대혁명』까지의 시기이다. 특히, 50년대는 신중국이 성립, 회복, 발전의 시기로 전체적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변화를 이룬 시기이다. 그러나 중일 양국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고, 특히 전후의 일본은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여 새로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있었다. 이러한 원인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우선, 그 당시 일본에 대한 정치정책의 필요에 따른 연구가 행해진 것이다. 연구내용을 보아도 『전후의 일본문제(戰後の日本問題)』(쓰무(思慕)), 『일본의 평화

운동(日本の平和運動)』(정썬위(鄭森禹)) 등이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모두 일본 국내에 있어서 미국 추종의 정책이나 동향의 비판 일색이었다. 그리고 연구의 발전은 당이나 나라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63년에 중앙정부와 국무원으로부터 ‘외국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호소가 발표되자마자 순식간에 많은 일본연구기관이 설치되었다.(2년 사이에 랴오닝 대학(遼寧大學), 지린 대학(吉林大學), 동베이 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난카이 대학 역사연구소(南開大學歷史研究所), 허베이 대학(河北大學),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中國科學院哲學社會科學部), 중국국제문제연구소(中國國際問題研究所), 톈진시 역사연구소(天津市歷史研究所) 등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일본연구소나 일본연구실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연구는 정책성이 강하고 산발적인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구의 기초가 형성되어 일부 연구자도 양성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출시된 일본연구저서는 80권에 가까우며, 발표된 연구논문도 200편에 이른다고 한다.

제2단계에는 특히 60년대의 후반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지되고 연구소에서는 연구 활동이 중단되고 모든 사업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일본연구도 완전히 정체시기에 들어갔다. 60년대 전반에 겨우 보이기 시작한 연구의 조짐도 이 『혁명』운동에 의해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이 단계의 중반부터 즉, 1972년에 중일(中日)국교가 회복되어 그 때부터 『문화대혁명』도 후기에 도달하여 질서회복의 기운도 돕고,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도 조금씩 회복해 갔다. 이 시기에는 우선 일본어학습의 붐이 일어나 전국의 몇 십 개소의 대학에 일본어학부나 전공이 회복 혹은 신설되고, 동시에 많은 도시에 있어서는 일본어의 라디오강좌나 일본어교실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일본어학습의 붐 덕분에, 그때까지 단절되었던 연구인재의 양성에 기여하고 훗날 일본 연구자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끊어져있던 연구활동도 재개되었지만, 『좌익』적인 영향의 타인지, 연구 범위가 좁고 연구 내용도 빈약하여, 일본의 의식주나 관혼상제의 습관 등을 소개하는 것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인재육성이나 연구의 기초가 훗날 연구고조기를 위한 밑거름의 준비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시기(1979)는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의 정책이 실시되어 경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이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일본연구 쪽도 다른 분야와 같이, 연구자가 그 전까지의 이데올로기 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크게 시야를 넓히고 전력을 다해 일본 연구를 전개했다. 중화 일본학회와 북경 일본학연구센터가 편찬한 『중국에서의 일본연구(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에 의하면, 1949년 10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중국대륙에서 일본연구에 관한 연구서가 약 3529권이 출판되었지만, 그 중의 3157권, 즉 총수의 89%가 1979년 이후에 출시된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동안 연구자 수나 연구기관도 급속히 증가해 전국적으로 일본연구기관이 100여곳 가깝게 설치되고, 전국적 혹은 지역적인 연구학회나 민간단체는 43개나 되고, 연구자 수도 2000명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일본연구는 이하와 같은 몇 개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먼저, 학술잡지가 많이 간행되어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통계의 의하면 현재 중국대륙에 있어서 일본연구에 관한 학술잡지는 대략 5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이 잡지들에 발표된 논문 등은 연간 800편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연구내용도 일본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언어, 문학, 예술, 역사, 지리, 정치, 법률, 군사, 사회 등 일본의 모든 방면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잡지는 일본연구를 발전시키고 학술교류를 촉진시켜,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일 양국 사이에 있어서의 학술교류도 나날이 빈번하게 된 것이다. 그 때까지 중국의 일본연구자는 일본의 학자와 교류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어 학자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되어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민간적인 연구기관을 통한 학술교류나 학자개인의 교류도 활발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교류방법으로서도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세워 연구성과를 함께 발표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해 중일 학술적인 면에서의 공동인식의 폭이 나날이 넓어져 학술연구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일 양국의 우호관계도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또한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많은 훌륭한 연구성과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일본경제론(日本經濟論)』, 『일본의 근대화(日本の近代化)』, 『전후 일본경제발전사(戰後日本經濟發展史)』, 『전후 일본산업정책(戰後の日本産業政策)』, 『전후일본경제의 기본구조(戰後日本經濟の基本構造)』 등 많은 전문저서가 차례차례로 출판되었다. 그 밖에 일본역사에 관한 연구나 일본문화에 관한 연구 등의 면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의 연구가 보여지고 있다. 특히, 1997년 8월, 작고하신 중일우호협회(中日友好協會)순평화 회장(孫平和會長)이 임종 때 병원에서 그가 수령한 상금, 강연, 저서에서 얻은 소득 및 요양 중에 일본의 친구로부터 받은 위문금과 사후에 생겨난 소득을 전부 송칭린 기금회(宋慶齡基金會)에 기증해, 『순평화 일본학회학술장려기금(孫平化日本學學術獎勵基金)』을 설립한다고 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일본연구를 장려하는 기금으로서는 처음이다. 그 후 송칭린 기금회는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동위원회의 주임은 중국문화부 전(前)부장, 송칭린 기금회의 전(前)부주석 류더유(劉德有)씨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1998년 10월 『중일우호조약』조인 20주년 되던 해에 제1회 평정(評定)수상 활동을 실시하였다. 더욱이 2년에 한 번씩 평정수상활동을 실시하여, 중국의 일본학 연구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고, 유례없이 뛰어난 견해를 가지고 신기축과 개혁에 도전하는 중년(50세미만)의 연구자를 장려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4회 시행된 평정수상활동에서 수상된 연구 성과의 대표작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제1회: 전문저작상(專門著作賞)(『중일농촌경제조직의 비교(中日農村經濟組織の比較)』)메이징 일본학연구센터(北京日本學研究センター) 저우웨이홍(周維宏), 『전쟁 전의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戰前の中國における日本語教育)』화둥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 쉬민민(徐敏民), 제2회: 전문저작상(2등상 『결과가능표현의연구 일본어·중국어대조연구의 입장에서(結果可能表現の研究—日本語·中国語対照研究の立場から)』칭화대학(清華大學) 장웨이(張威), 『차문화 사상배경의 연구—차로부터 다도에(茶文化の思想背景の研究—茶から茶道へ)』베이징대학(北京大學) 텅쥘(滕軍), 제3회: 전문저작상(1등상 『겐지모노가타리의 구제(源氏物語の救济)』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 장룽메이(張龍妹), 제4회: 전문저작상(1등상 『겐지모노가타리의 구제(源氏物語の救济)』베이징 외국어대학(北京外國語大學) 주징웨이(朱京偉), 2등상 『중국에서 일본문화의 전

과와 영향(日本文化在中国的传播与影响)(1972~2002)』(중국사회과학원李文) 등의 기초 위에 내년 5번째의 평정수상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장려기금과 연구를 격려하는 시스템이 완비된다면 더욱 많은 젊은 연구자가 나타나 더욱 훌륭한 연구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베이징(北京)일본학연구센터와 중국의 일본연구

1979년 12월 당시의 일본수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정부와의 합의사항 중 한가지로 중일 양국의 상호이해촉진을 위해 중국의 일본어 교육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쌍방관계자(중국의 교육부와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관련 전문가)에 의한 협의의 결과, 그 일환으로 그 이듬해 1980년 9월부터 베이징언어학원(北京言語学院)(현재 베이징언어대학(北京言語大学)에 「전국일본어교사교육반(全国日本語教師培訓班)」(통칭 「다핑 학교(大平学校)」)이 개설되었다. 이 사업은 중국 국내대학의 현직 일본어교사에 대해 일본교육에 관한 집중연수를 실시해(1년간에 120명),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세워 계속 견지함으로써 합계 600명(당시의 중국대학에 등록되어 있던 일본어 교사의 총수에 해당함)의 교원의 재교육을 행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실시되어 중반부인 1983년에 중국 국내에서는 「일본어연수」와 더불어, 일본어·일본연구의 「대학원석사과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의 중국에서의 일본어교육은 대학의 일본어학부나 학과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나 대학원 수준의 일본연구는 없었기에 중일 쌍방이 협의한 결과,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는 미나모토 료엔(源了圓) 동북대학교수(당시)를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대학원석사과정의 교육방침·전공내용·커리큘럼 등에 관해, 중국 측의 관련전문가와 검토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평학교의 경험에 이어 일본어학·일본문학 외에, 일본사회·일본문화의 코스도 포함하는 대학원과정을 설치한다고 제안되었다. 중국의 학제(學制)를 기초로 하고 일본의 대학제도를 참고로 한 커리큘럼이 짜여졌다. 당시의 중국의 문과계에서는 교수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가 일반이었던 제도 내에서, 일본의 문과계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세미나 형식의 수업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육 그 자체 면에서의 창의적 고안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연구를 위한 도서 자료관도 병설되었다.

『다핑(大平)학교』의 시대부터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의 시대까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주로 『일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는 일본어교사·일본연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해왔지만, 센터개설 이래 석사과정 종료자가 4백 수십 명, 일본어교사 연수를 받은 대학교사가 4백 수십 명으로, 다핑(大平)대학 시대의 6백 명을 포함하면 약 천5백 명의 학생이 여기로부터 사회로 진출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40대부터 50대 전후의 젊은이 혹은 중견의 일본어교사나 일본연구자를 보면, 다핑 학교나 혹은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의 졸업생이 꽤 많이 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많은 저명한 학자가 파견되었다.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가 개설 된 1985년 가을 학기부터 2007년의 봄 학기 현재까지 파견된 교수의 인원수는 700명에 가까우며, 게다가 북으로는 홋카이도부터 남으로는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국의 대학으로부터 인선되고 있으므로, 그 인적 네트워크는 다른 어느 기관도 필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교수진의 라인업의 대단함도 모든 학생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 예를 들면, 미나모토 료엔(源了圓), 오키쓰 케이치로(奥津敬一郎),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 기타하라 야스오(北原保雄), 광허처(芳賀徹), 첸텐아이(前田愛), 승창궁(熊倉功), 위수이 유(興水優), 하야시 시로(林四郎), 오노에 가네히데(尾上兼英), 도가와 요시로(戸川芳郎), 사토 다모쓰(佐藤保), 이케다 온(池田温), 다케다 아키라(竹田晃), 다케우치 미노루(竹内実), 기야카 히데오(木山英雄), 미조쿠치 유조(溝口雄三), 노무라 고이치(野村浩一), 나미키 요리나가(並木頼寿), 구보조에 요시후미(窪添慶文), 사토 유키히토(佐藤公彦), 다케우치 노부오(竹内信夫) 등등에 이른다. 이 중 많은 선생님들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 하더라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가들이지만, 그러나 센터의 학생들은 北京에서 이들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하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선배들은 자주 말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국인의 객원교수에도 순평화(孫平化), 류덕유(劉德有), 왕푸상(王福祥), 류야오우(劉耀武), 완평(万峰), 옌사오탕(嚴紹湯), 왕샤오츄(王

曉秋), 청샤오(程嘯) 등 중일 교류사에 이름이 남을 인물이나 베이징 대학, 런민(人民)대학 등 중일 교류대학의 교수들이 많다.

이만큼 중일 양국의 교수나 대가들이 모여 있는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인 만큼 당연히 전국의 일본학 연구에 뜻을 품고있는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최고학부로 되었다. 매년 정원 35명(제4차 5개년 계획의 2000년까지는 20명)의 모집에 대해, 항상 130명 전후의 응모자가 신청하여, 1차 필기시험(정치·사회, 영어, 일본어실력, 일본학 전문, 일본사정)과 2차 면접시험이라는 난관을 돌파하고 중국 전역으로부터 우수한 학생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더더욱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 문부과학성과 중국 교육부의 협력을 얻어, 1991년부터 센터의 졸업생 중에서 매년 4명을 추천하여 일본에서 박사공부를 하면서 더욱 연찬(研鑽)을 깊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2007년 봄 현재까지 총17기 합계 68명의 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그 중 약 30명의 학생이 일본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지금은 일본학연구의 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욱이 2000년 제4차 5개년 계획으로부터 센터에서도 박사과정의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가 정립되어, 지금은 일본파견과 현지모집의 2가지 방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일본학연구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의 혁명시대에 쑨원(孫文)이 인솔한 군간부 양성학교인 「황푸 군사학교(黃埔軍校)」가 있어, 그곳에서는 후세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 배출되었다. 인재 양성의 의미에서는 다핑 학교와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가 확실히 중국의 일본어교육·일본연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본학연구의 「황푸 군사학교」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는 위에서 말한 교육의 중심센터이면서 동시에 일본학 연구센터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연구센터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현재는 센터의 6개의 코스(일본어, 일본어교육, 일본문학, 일본문화, 일본사회, 일본경제)에 대응되는 6개의 연구실이 마련되어 있어, 전임 스태프 13명이 일본에서 파견된 일본인파견교수들과 함께 일상의 교육활동에 종사함과 동시에, 연구활동도 빈번히 행하고 있다. 특히, 제3차 5개년 계획이래 보다 연구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연구스태프 각 개인이 연구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연구실

을 단위로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는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에 선정된 「중일대역 코파스의 구축과 응용연구(中日対訳コーパスの構築と応用研究)」(언어코스)를 시작으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 「『일본고전문학연구사전(日本古典文学研究辞典)』의 편찬」, 「20세기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의 소개·번역에 관한 통시적연구」(문학코스), 「『현대일본사회의 해독(現代日本社会の解説)』 교과서출판사업」, 「일본사회학 명저총서 번역·출판사업」, 「일본경제학 명저총서 번역·출판사업」(사회코스), 「근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중일사상 교류에 관한 연구」(문화코스),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정독수업의 연구(中国における日本語精読授業の研究)』(일본어교육코스) 등 8개의 대형연구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어느 연구프로젝트도 센터의 연구스태프나 파견교수는 물론이고, 중국내지 해외의 연구자도 협력도 도모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맺으려는데 노력하고 있다.

센터의 연구스태프와 국내의 일본학연구자에게,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기 위해서, 1991년부터 센터는 『일본학 연구(日本学研究)』라고 제목을 붙인 학보를 1년에 1권 발행하고 있다. 이 학보의 발행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이사장(당시) 가토리 야스에(鹿取泰衛)씨가 창간인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지가 동(同)센터의 기요(紀要)로서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어·일본 연구 및 일중 문화의 비교 연구의 한층더 큰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일중 양국에 걸치는 연구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더욱 크게 넓혀간다」는 것이 된다. 확실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본학 연구』가 창간되자마자 바로 중국 국내의 일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중국 일어교학 연구회 회장, 중국 와카·하이쿠(和歌俳句)연구회 회장, 중국일본사학회 회장, 베이징 대학 비교문학 비교문화 연구소 소장 등을 시작으로 하는, 학계의 태두와 존경 받고 있는 일류 학자가 옥고를 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중견연구자도 전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기고해 주었다. 또한 1997년에 간행된 『일본학 연구』제6호로부터, 센터 석사과정의 석사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추천 발표하는 등, 중국의 연구계 센터의 교육 레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밖에 『베이징 일본학연구중심 학술전서(北京日本学研究中心學術專著)』의 시리즈물을 출판하여 센터 전임연구 스태프, 객원교수, 객원연구원, 박사과

정 졸업자의 연구성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미 간행된 것으로는 쉬이핑(徐一平) 『일본어연구(日本語研究)』, 저우웨이홍(周維宏) 『중일농촌경제조직 비교연구(中日農村經濟組織比較研究)』, 왕커페이(王克非) 『근대 중·일이 서방정치 철학사상에 대한 수용(中日近代對西方政治哲學思想的攝取)』, 왕샤오쉰(王曉秋) 『일미기축과 경제외교(日米基軸與經濟外交)』, 리귀칭(李國慶) 『후지산에서 내려다 본 마을(富士見町)』, 위르핑(于日平) 『현대 일본어에서 원인·이유·목적구 상관성에 대한 연구(現代日語中原因·理由·目的句相關性的研究)』, 스젠쥘(施建軍) 『한자와 일본어의 주제구 비교연구(漢日主題句對比研究)』 등이 있다) 특히, 센터에서 편찬한 『중국 일본학 문헌 총목록(中國日本文學文獻總目錄)』과 『중국의 일본연구(中國的日本研究)』(일본어판은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中國における日本研究)』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내에서 발표된 일본 연구면에서의 문헌과 일본연구기관 및 개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록한, 일본학 연구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데이터 베이스가 되었다.

센터를 중일 양국의 연구자가 활약하는 더 큰 무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1987년부터 센터 주최의 일본학 중일 심포지엄(나중에 한국이나 미국 등의 학자도 참가하여 국제심포지엄이 된다)을 실시해왔다. 2007년 현재까지 13회를 거듭해 온 이 심포지엄은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학연구의 일대 행사로 간주되어, 심포지엄의 시기가 다가오면, 센터에서는 아직 통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심포지엄은 몇 시간 행해지는지, 어떤 주제로 행해지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할 정도이다. 특히 2000년 9월에 센터설립 15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21세기의 일본학의 방법 외부로부터의 시점』을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씨의 기념강연에 초대 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장에는 600명 정도의 청중이 몰려드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 후 단상에서 행해진 좌담토론에는 중국과 일본의 학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림대학교 일본연구소 지명관 소장과 미국의 하버드대학 라이샤워 센터 앤드류 고든 소장도 더해져, 이 연구의 무대가 중국, 일본으로부터 한층 동아시아에,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넓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금년의 10월 20일, 21일에는 또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연구(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研究)』를 제목으로 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중국 국내와 해외로부터 약 150명의 발표자의 응모가 있으며, 더욱 기초 강연자, 7개의 분과회의 좌담토론의 패널리스트를 포함하면 약 200명의 출석자가 있는 대형 국제심포지엄이 된다.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는 설립 당초부터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지원 아래에, 중국의 일본학연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본연구(인문사회계)의 전문도서를 모으는 도서관의 건설을 맡아왔다. 최근 몇 년간 이 도서관은 민간으로부터 기증 받은 몇 개의 개인문고도 완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카사키(高崎)문고(LT무역의 일본측연락책임자·다카사키 다쓰노케(高崎達之助) 기증, 故人), 쑨핑화(孫平化)문고(중일우호협회회장·쑨핑화 씨 기증, 故人), 다핑(大平)문고(前일본수상 오히라 마사요시 씨를 기념하기 위해, 오히라(大平)재단 기증), 도쿠가와(徳川)문고(가쿠슈인(学習院)대학교수·일본국어학회대표이사 도쿠가와 무네마사(徳川宗賢) 기증, 故人), 고미고(小孫)문고(고단샤(講談社)퇴직편집자·고미고 야스시(小孫靖) 기증), 고마쓰(松村)문고(도쿄 대학교수·마쓰무라 아키라(松村明) 기증, 故人) 등이다. 현재 일본어도서의 장서수는 이미 17만권에 이르러, 중국 국내에 있어서 최대규모의 일본어도서전문 도서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NII(국립정보학연구소)에도 협력을 받아, 3년간을 걸쳐 소장도서의 계통화 및 구성을 실시하여 2002년 3월에 완성되었다. 이 시스템의 완성에 의해 센터도서관의 이용자가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로는 센터의 학생, 연구자, 파견교관, 객원교수, 객원연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베이징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연구자, 일본어교육자에도 넓게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열람은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 졸업논문이나 석사논문 등의 작성시기가 되면, 멀리 광저우(廣州), 아모이, 창춘(長春), 다롄(大連) 등 중국 전국의 각지로부터 학생들이 몰려와 자료수집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3. 근래의 일본어연구

중국의 일본연구의 발전에 따라 일본어에 관한 연구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에 「중국일어교학연구회(中国日語教学研究會)」가 성립된 이래, 전

국의 일본어교사가 그 산하에 모여 일상의 일본어교육을 진행시키는 한편 연구에도 열중해오고 있다. 그런 의미로 중국의 일본어연구는 일본어교육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도 중화일본학회(中華日本学会) 공동 편찬의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中国的日本研究)』(1997, 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한 전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 개인연구자는, 1260명으로 그 중에서 일본어연구자는 463명(일본어교육자를 포함한다), 전 인원의 36.7%를 차지해 중국의 일본어 교육자 층의 두께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일본어 관계의 전문잡지는 2종류가 있어, 하나는 『일본어의 학습과 연구(日本語の学習と研究)』(1979년 창간,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계간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어지식(日語知識)』(1983년 창간, 大連외국어학원, 월간지)이다. 그 외에 외국어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지, 예를 들면 『외어교학과연구(外語教学与研究)』베이징 외국어대학, 『해방군외국어학원학보(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解放軍外國語學院)이나 『일본학연구(日本學研究)』(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 등과 같은 학보, 기요 등도 평소 일본어연구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며, 또 위에서 언급했던(前記) 『중국일어교학연구회(中國日語教學研究會)』도 부정기적으로 『중국일어교학연구문집(中國日語教學研究文集)』(2005년 현재까지 제9집이 발행됨)을 간행하여, 일본어연구자의 무대로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지나 학보, 기요에 발표되어 있는 연구논문은 연평균 200편에 가깝다. 그 외에 단행본으로 연구저서도 한 해에 몇 권, 몇 십 권 정도가 출판되고 있다. 중국의 일본어연구는 일본어교육과 평행하여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은 하나의 연구 붐에 편승하여 바뀌는 이론적인 연구보다, 자신의 교육현장에서 부딪친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이다. 『중귀즈왕(中國知網)』에서 조사한 『외국어류핵심간행물(外語類核心期刊)』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에 발표된 일본어관계 논문은 180편(문법74편, 교육 32편, 어휘 30편, 어용론 12편, 번역 9편, 문학표기, 문화언어학, 계산언어학 3편, 음성, 수사, 사회언어학, 일반언어학 1편) (그 중 『일어학습연구(日語學習与研究)』는 125편). 그 중에서, 뜨거운 화제로 이하와 같은 몇 개의 커다란 테마로 분류할 수 있다.

a. 인지(認知)언어학적인 테마

「시간순서원칙과 일본어어순(时间顺序原则与日语语序)」 「문구에 있어서 “時”에 대한 인지(关于“一時”分句中“時”的认知 “-時”）」 「일본어 시·공간적 표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日语时空表达初探)」 「대역을 통해 본 漢語와 日本語의 인지패턴의 차이(从汉日对译看汉日语认知模式之差异 漢日)」 「방위사구에 대한 비교연구(汉日方位小句的对比研究 漢日)」 「주관적 위치이동에 대한 日漢비교연구(主观位移表达的日汉对比研究)」

b. Modality 연구테마

「“(よ)うではないか”의 용법에 대한 고찰(试论“(よ)うではないか”的用法)」 「의문과 판단의 접점(疑問与判断的接点)」 「“だろう”와“だろうか”가 인식정태면에서의 지위(“だろう”与“だろうか”在认识情态中的地位)」 「일본어 “のだ”어구의 의미에 대한 고찰(关于日语“のだ”句意义的考察)」 「일본어 사역문에 대한 고찰(日语祈使句探析)」 「“してもいい”의 기본 의미와 파생의의(“してもいい”的基本意义与引申意义)」

c. 부정표현의 연구테마

「중일 비교입장에서 본 “一”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문의 구성면에서의 제한에 관하여(从中日比较的角度看含有“一”的否定句的句法限制问题)」 「완전부정을 표현하는 “一人も~ない”와 “誰も~ない”에 관하여(表示完全否定的表达方式 “一人も~ない”和“誰も~ない”）」 「일본어 テ가 들어간 부정복합구(日语テ形进入否定辖域的复句)」 「“から”를 내포한 단순 부정문의 부정초점으로 본 일본어 동사(从含“から”的単句否定句的否定焦点看日语动词)」

d. 주어·주제의 연구테마

「일본어에 주어가 있는가(日语有主语吗)」 「언어학이론을 통해 본 “ハ”“カ”(语言学理论对“ハ”“カ”的审视)」 「주어와 주제, 서술문과 평서문사이의 관계(主语、主题与叙述句、陈述句的关系)」 「중/일언어 “格”에 대한 표현(中日语言

“格”的表达)」「일본어의 “ゼロ助詞” 및 생성조건(论日语的“ゼロ助詞”及其生成条件)」「일본어 이중 주어구 특성분석(日语双重主语句子特性分析)」「존재사를 술어로 하는 일본어 이중 주어구의 구절 성립 조건 (存在词作谓语的日语双重主语句的成句条件)」

e. 연체(連体)·연용(連用)의 연구테마

「中日文定补状语的类型学特征」「중일영 3종류언어중 다항수식어 어순의 동이(论汉日英三种语言中多项定语语序的异同)」「‘V+감각N’구조의 수식어 시태(论“V+感觉N”结构的定语时态)」「연용수사성분‘N+テ’의 단어의의 지향분석(连用修饰成分“N+テ”的语义指向分析)」「일어연용형 수식어의 양면성의 형성 원인 검토(日语连用修饰语两面性成因的探讨)」「テ형 접속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关于テ形接续的几个问题)」「수식체언인 수량사 위치이동현상에 대한 분석(修饰体言的数量词位移现象分析)」「ナカヲ구절의 격식화 현상 및 격표식의 기능약화(论ナカヲ句节的格式化现象及其格标识ヲ的功能弱化问题)」「격표식의 기능약화에 관한 몇가지 고찰(关于格标识功能弱化的若干考察)」

*입상한 연구성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쑨펑화 일본학 학술장려기금상 (쑹칭링(宋慶齡)기금회)

제1계 수상작품: 1998년, 화둥(華東)사범대학 쑤민민(徐敏民) 『전쟁 전의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戰前の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 광저우 외국어외무대학(廣州外語外貿大學) 천팡저(陳訪澤) 『일본어분열문과 뱀장어문의 형성(日本語分裂文とウナギ文の形成)』

제2계 수상작품: 2000년, 칭화대학(淸華大學) 장웨이(張威) 『결과가능표현의 연구 일본어·중국어 대조연구의 입장부터(結果可能表現の研究—日本語·中國語對照研究の立場から)』, 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우다강(吳大綱) 『일본어의 동사의 시제와 범위의 의의(日本語の動詞の時制と範圍の意義)』;

제3계 수상작품: 2002년, 뤼양외국어학원(洛陽外國語學院) 스젠쥘(施建軍) 『日漢주제문구조대상연구(日漢主題文構造対象研究)』, 베이징 외국어대학 위르핑(于日平) 『현대일본어에 있어서의 원인, 이유,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구에 관한 종합연구(現代日本語における原因、理由、目的を表す従属句に関する総合研

究』, 다롄외국어학원(大連外國語學院) 쑹시예이(宋協毅) 『현대일본어의 조동사에 관한 연구(現代日本語の助動詞に関する研究)』, 상하이 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다이보위(戴寶玉) 『노다와 그 부정을 둘러싸고(ノダとその否定をめぐって)』,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평광루(彭廣陸) 『중국어의 신어 보여지는 일본어 어휘의 수용(中國語の新語に見られる日本語語彙の受容)』

다쎨(大森)우수논문상(중국일어교학연구회)

2002년 『일어교육과 연구(日語教學與研究)』 발표논문을 대상: 베이징 외국어 대학 주징웨이(朱京偉) 『구조 요소분석으로부터 보는 중국제한자어와 일본제한자어(構造要素分析から見る中国製漢語と和製漢語)』, 칭화 대학(清華大學) 장웨이(張威)著 『부정사 『ない』에 대한 미세분석(否定辭 『ない』についてのミクロ的分析)』, 화둥 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 가오닝(高寧) 『讓病句說話』, 항저우 사범학원(杭州師範學院) 왕신(王忻) 『일본어 어투에 대한 고찰(日語語氣再考)』, 광둥외국어외무대학(廣東外語外務大學) 양취런(楊詘人) 『일본어 어법의 대립과 연결(論日語語法的對立與連接)』, 상하이 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쉬즈후이(許慈惠) 『일본어 語義學의 詞法研究(日語語義學的詞法研究)』

4. 중국에서의 일본어교육의 현상

1. 학습자 수의 증가

1998년 25만명→2003년 39만명(세계 제2위)증가율은 약57%이고, 일본어교사도 5년 전의 5000명으로부터 6000명으로 증가, 교육 수준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등교육 : 학습자95000명에서204000명으로, 증가율113% (학습인구의 53%를 차지함), 교사 2500명에서3400명으로 초등·중등교육 : 학습자116000명에서79000명으로, 감소율31% (학습인구의20%를 차지함), 교사 1500명에서 1100명으로 학교 외교사 : 학습자33000명에서103000명으로, 증가율208% (학습인구의27%를 차지함), 교사1000명에서 1500명으로.

2. 교재의 완비와 대학원과정의 증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의 교재가 완비

『소학일어교재(小学日語教材)』(랴오닝(遼寧)少年儿童출판사, 2002년), 『일어 의무교육과정표준실험교과서(日語-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인민교육출판사, 과정교재연구소, 2002년), 『일어-고급중학교교과서(日語-高級中學課本)』(인민교육출판사, 과정교재연구소, 2002년), 『신대학일어(新大學日語)』(고등교육출판사, 천쥘선(陳俊森)외, 2002년), 『일본학기초정선총서(日本學基礎精選叢書)』(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기획, 고등교육출판사출판, 고등부에 의한 전국 대학원 공통교재로써 추천, 쉬이핑 『일본어언(日本語言)』, 왕용(王勇) 『일본문화(日本文化)』, 리권둥(李國棟) 『일본사회(日本社會)』, 펑사오쿠이(馮昭奎) 『일본경제(日本經濟)』, 왕용(王勇)외 『일본역사(日本歷史)』, 첸영명(陳永明) 『일본교육(日本教育)』, 류젠후이(劉建輝) 『일본문학(日本文學)』<미간>, 귀련유(郭連友)외 『일본예술(日本藝術)』<미간>)

석사과정의 확대와 박사과정의 증설

日語語言대학의 박사과정대학(베이징 대학, 베이징 외국어대학, 등베이 사범대학, 상하이 외국어대학, 지린 대학). 석사과정은 50대학을 넘는다.

3. 학습목적의 변화

잡지 『인민중국(人民中國)』2004년 8월호에, 『점차 변화하는 일본어교육(じわりと変わる日本語教育)』이라고 하는 특집호를 실음, 베이징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일본어를 공부하는 동기(a.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b. 일본의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만화·게임 등을 더 즐기기 위해, c. 일본어가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하므로, d.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e.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f. 취직의 플러스 요인이 되므로, g. 일본과 중국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h. 일본어가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i. 기타)

일본어를 공부해서 장래에 어떻게 할 생각인가(a. 일본기업의 중국대표가 되고 싶다, b. 일본에 유학하고 싶다, c. 외교관등 공무원이 되고 싶다, d. 스스로 기

업(起業)하여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싶다, e.여행사의 일본어 가이드가 되고 싶다, f.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g.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h.일본인과 결혼하고 싶다, i.그 외)

4. 향후의 일본어교육의 문제

-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본어교육
- 문화이해를 촉진하는 일본어교육
- 지역공용어를 목표로 하는 일본어 교육

5. 향후의 과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세계에 있어 제일 먼저 이웃나라의 일본을 주목하여, 그것을 관찰, 기록의 연구는 눈부신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향후의 과제를 생각할 때, 특히 과거의 연구와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 최근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한 그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적이 편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화일본학회(中華日本学会)·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 편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中国的日本研究)』, 마신궈(馬興國)· 취신징(崔新京) 主編 『중국 일본연구잡지에 관한 역사적회고와 전망(中国的日本研究雜誌歷史回顧與展望)』,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 편 『중국일본 문헌총목록(中国日本学文献總目錄)』, 리위(李玉)· 탕충난(湯重南)· 린진장(林振江) 主編 『중국의 일본역사 연구(中国的日本史研究)』, 리위(李玉)· 샤잉위엔(夏應元)· 탕충난(湯重南) 主編 『중국의 중일관계사연구(中国的中日關係史研究)』, 린창(林昶) 著 『중국의 일본연구잡지사(中国的日本研究雜誌史)』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연구전체 혹은 각 영역에 있어서 연구의 역사와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파악하고, 그 연구의 현상과 수준을 올바르게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향후 연구방향과 연구과제를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는 계속해서 아직 정확히 총괄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을 깊이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연구의 방법 등을 시대의 발전에 맞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은 이미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까지 입수할 수 없었던 정보를 간단

히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중국 국내의 정보는 물론이고, 일본으로부터의 정보, 혹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일본연구의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연구의 글로벌화에 의해 연구자의 수준과 연구에 대한 요구도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에 있는 일본연구기관들은 반드시 그러한 정보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세계의 연구수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그와 같은 인프라와 기초적인 연구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연구분야, 특히 학제적인 연구분야를 개척해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향후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2개의 측면인 것이다. 연구가 심화될수록 그 영역만의 연구나 지식에 한정되면 편협한 연구가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연구영역의 연구성과를 흡수하여 타영역의 학자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연구영역에 새로운 연구시야가 열리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또, 첨단 연구는 진척시키면 진척시킬수록 그 연구영역의 기초적인 축적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에 대응하는 축적이 없으면 머지않아 연구의 길도 중도에서 그 명맥을 다하게 될 것이다.

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の現状と展望

—特に日本語研究と日本語教育を中心に—

徐一平

一、過去の研究

1949年、中華人民共和国成立以来、50何年の歴史がたったが、この間、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もかなりの発展が見られた。この50何年間のことを振り返ってみた場合、大きく二つの時期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第一時期は、前半のほぼ30年間をひとつの区切りとし、第二時期は、後半のおよそ20何年間をひとつの区切りとする。

第一時期(1949年—1978年)は、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から中国共産党第十一回三中全会が行われ、つまり中国において改革・開放政策が実施されるまでの期間である。この時期を更に細かく分ければ、また50年代から60年代の前半までと60年代の後半から70年代の後半までの二つの段階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第一の段階は、新中国の成立から、いわゆる『文化大革命』の時期までである。この段階では、特に50年代においては、新中国が、成立、回復、発展の時期にあたり、全体的に見れば、短い期間の間、かなりの変化を遂げた時期でもある。しかし、中日両国においては、正常ならぬ関係にあり、特に戦後の日本は、アメリカの政策に追随し、新しい中国に対して敵対的な政策をとったために、両国の関係は緊張した雰囲気の中にあった。このような原因もあったと思うが、そのときの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は、以下のような特徴が見られた。

まず、その当時の日本に対する政治政策の必要に応じて研究が行われることである。研究の内容から見ても、『戦後の日本問題』(思慕)、『日本の平和運動』

(鄭森禹)などが示しているように、いずれも日本国内におけるアメリカ追随の政策や動向を批判するものばかりであった。それから、研究の発展は、党や国の政策とも密接な関係があった。例えば、1963年に、中央政府と國務院から「外国問題の研究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呼びかけが発表されるや否や、たちまちに多くの日本研究機関が設置された(二年間の間に、遼寧大学、吉林大学、東北師範大学、北京大学、南開大学歴史研究所、河北大学、中国科学院哲学社会科学部、中国国際問題研究所、天津市歴史研究所など多くの大学や研究機関に日本研究所や日本研究室が設けられた)。しかし、この時期の日本研究は、政策的な傾向が強く、散発的なものが多いとは言え、やはりある程度研究の基礎が作られ、一部の研究者も育てられたのである。統計によれば、この間出された日本研究書は80冊近くあり、発表された研究論文も200篇もあった。

第二の段階は、特に60年代の後半から、「文化大革命」が始まり、学校では授業が停止され、研究所では研究活動が途絶え、すべての事業が中断されたことと同じように、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も完全に停滞の時期に入ってしまった。60年代の前半にやっと見え始めた研究の兆しも、この「革命」運動によってかき消されてしまったのである。しかし、この段階の半ばから、つまり、1972年に、中日国交が回復され、そのときから「文化大革命」も後期に差し掛かり、秩序回復の機運も手伝って、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も少しずつ回復してきたのである。この時期には、まず日本語学習のブームが起これり、全国の何十箇所の大学において、日本語学部や専攻が回復あるいは新設され、同時に、多くの都市においては、日本語のラジオ講座や日本語教室が開設された。このような日本語学習のブームのおかげで、それまで断絶された研究人材の養成に寄与し、後の日本研究者の成長に大きく役立てたのである。それから、それまで途絶えていた研究活動も再開されたが、まだ「左翼」的な影響があったせいか、研究の面がまだ狭く、研究の内容も貧弱で、日本の衣食住や冠婚葬祭の習慣などを紹介することにとどまっているものが多かった。しかし、この間の人材育成や研究の基礎が後の研究高潮期のために下敷きを準備したと言えよう。

第二時期(1979年—現在)は、中国では改革、開放の政策が実施され、経済を中心に各分野においても大きく変化を遂げた時期である。そして、日本研究の

ほうも他の分野と同じように、研究者がそれまでのイデオロギー面での束縛から解放され、大いに視野を広め、全力をあげて日本研究を展開したのである。中華日本学会と北京日本学研究中心が編纂した『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によれば、1949年10月から1993年3月までの間に、中国大陸においては、日本研究に関する研究書はおよそ3529冊が出版されていたが、そのうちの3157冊、つまり総数の89%を占めるものが、1979年以後に出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も、この期間中に研究者数や研究機関も急速に増え、全国においては、日本研究機関が100近くまで設置され、全国的あるいは地域的な研究学会や民間団体は43もあり、研究者の数は2000人近くに上っているのである。

この時期の日本研究は、以下のようないくつかの特徴が挙げられよう。

まず、学術雑誌が数多く刊行され、研究者の研究成果は随時発表できるようになった。ある統計によれば、現在中国大陸においては、日本研究に関わる学術雑誌はおよそ57種類が発行されていて、これらの雑誌に発表された論文などは、年間800篇近くになっている。しかも、研究内容も、日本の経済、文化、科学、教育、言語、文学、芸術、歴史、地理、政治、法律、軍事、社会など、およそ日本のあらゆる方面を網羅しているのである。これらの学術雑誌は、日本研究を発展させ、学術交流を促し、日本社会を理解するため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次に、中日両国の間における学術交流も日増しに頻繁になってきたことである。それまで、中国の日本研究者は、日本の学者との交流が非常に少なかった。しかし、この時期になると、学者同士の交流が非常に盛んになり、政府レベルのフォーマルな交流はもちろんのこと、民間的な研究機関を通しての学術交流や学者個人の交流も盛ん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交流の方法としては、共同で国際シンポジウムを主催することもあれば、共同で修士課程や博士課程で若い研究者を養成するようなプログラムもあり、また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を立てて一緒に研究成果を発表するような形もある。このような交流活動を通して、中日学術面での共同認識の幅が日増しに広げられ、学術研究の発展を促すだけでなく、中日両国の友好関係も大きく強められたのである。

更に、研究の深まるにつれて、多くのすばらしい研究成果がどんどん世に送り

出されているのである。例えば、80年代の後半から、日本の経済に対する研究が盛んになり、『日本経済論』、『日本の近代化』、『戦後日本経済発展史』、『戦後の日本産業政策』、『戦後日本経済の基本構造』など多くの専門著書が次々と出版された。ほかに、日本歴史に関する研究や日本文化に関する研究などの面においても同じような研究ぶりが見て取れるのである。特に、1997年8月、故中日友好協会孫平化会長が、臨終の際病院にて、氏が受領した賞金、講演、著書で得た所得および病氣療養中に日本の友人から送られた見舞金と死後に得るこの種の所得をすべて宋慶齡基金会に寄贈し、『孫平化日本学学術奨励基金』を設立するという主旨の遺言を残した。これは、今まで初めての日本研究を奨励するような基金である。その後、宋慶齡基金会は、管理委員会を設立し、同委員会の主任は中国文化部元部長、宋慶齡基金会元副主席の劉徳有氏が任命された。そして、1998年10月『中日友好条約』調印20周年の際に第一回評定受賞活動を行い、更に二年に一度評定受賞活動を行い、中国の日本学研究分野で際立った成果を収め、比類のない優れた見解を持ち、新機軸と開拓に挑む中年青年(50歳未満)の研究者を奨励することを決定した。今まで、四回行われた評定受賞活動で受賞された研究成果の代表作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第一回：専門著作賞(『中日農村経済組織の比較』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周維宏ら、『戦前の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華東師範大学徐敏民)、第二回：専門著作賞(二等賞『結果可能表現の研究—日本語・中国語対照研究の立場から』清華大学張威、『茶文化の思想背景の研究—茶から茶道へ』北京大学滕軍)、第三回：専門著作賞(一等賞『源氏物語の救济』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張龍妹)、第四回：専門著作賞(一等賞『源氏物語の救济』北京外国語大学朱京偉、二等賞『日本文化在中国的传播与影响(1972~2002)』中国社会科学院李文)など。この基礎の上で、来年はまた五回目の評定受賞活動を準備している。このような奨励基金と研究を激励するシステムが完備すれば、きっともっと多くの若い研究者が現れ、もっとすばらしい研究成果が生まれてくるに違いない。

二、北京日本学研究中心と中国の日本研究

1979年12月、当時の日本首相大平正芳氏が、中国を訪問したとき、中国政府との合意事項のひとつとして、中日両国の相互理解促進のために中国の日本語教育に対して協力することを約束し、双方関係者(中国の教育部と日本国際交流基金および関係の専門家)による協議の結果、その一環として、翌1980年9月から、北京語言学院(現在は北京語言大学)に「全国日本語教師培训班」(通称「大平学校」)が開設された。この事業は、中国国内の大学の現職日本語教師に対して日本語教育に関する集中研修を行い(一年間に120名)、これを五カ年計画で継続することにより、計600名(当時の中国大学に登録されている日本語教師のほぼ総数にあたる)の教員の再教育を行おうという計画であった。

この事業が実施されて半ばごろの1983年に、中国国内から「日本語研修」に加えて、日本語・日本研究の「大学院修士課程」を新設してはどうかという声が上がった。当時の中国においては、日本語教育は各大学の日本語学部や学科で行われていたものの、大学院レベルの日本研究はまだ例がないために、中日双方で協議した上で、日本国際交流基金からは源了圓東北大学教授(当時)を代表とする調査団が派遣され、大学院修士課程の教育方針・専攻内容・カリキュラムなどに関して、中国側の関係専門家と検討協議を行った。その結果、大平学校の経験に連なる日本語・日本文学のほかに、日本社会・日本文化のコースも含む大学院課程を設置すると提案された。中国の学制に沿った枠組みの中で、日本の大学制度も参考にしたカリキュラムが組まれた。当時の中国の文科系ではまだ教授による一方的な講義が一般だった制度の中で、日本の文科系では既に一般的に行われていたゼミ形式による授業も積極的に取り入れるなど、教育そのものの面での創意工夫が図られると同時に、日本研究のための図書資料館も併設されることになった。

「大平学校」の時代から、北京日本学研究中心の時代まで、この事業においては、主に「日本に関する専門知識を有する日本語教師・日本研究者」を養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きたが、センター開設されて以来、修士課程修了者が四百数十人、日本語教師の研修を受けた大学教師が四百数十人で、大平学校時代

の六百人を含めると、約千五百人の学生がここから巣立っていったのである。現在、中国の各大学や研究機関で活躍している40代から50代前後の若手や中堅の日本語教師や日本研究者を見渡せば、大平学校か、あるいは北京日本学研究中心の卒業生がかなり多くいる。

このような人材を養成するために、日本から多くの著名な学者が派遣された。北京日本学研究中心開設の1985年の秋学期から、2007年の春学期現在まで、派遣された教授の人数は700人近くあり、しかも、北は北海道から南は沖縄まで、日本全国の大学から人選されているので、その人的ネットワークは、ほかのどの機関も匹敵できないものになっている。その教授陣のラインナップのすごさも、すべての学生にうらやましがられるものであった。例えば、源了圓、奥津敬一郎、中西進、北原保雄、芳賀徹、前田愛、熊倉功、興水優、林四郎、尾上兼英、戸川芳郎、佐藤保、池田温、竹田晃、竹内実、木山英雄、溝口雄三、野村浩一、並木頼寿、窪添慶文、佐藤公彦、竹内信夫などなど。この中の多くの先生は、おそらく日本に留学してもなかなか直接会えないような大家ばかりだが、しかし、センターの学生は北京にいながらにしてこれらの先生から直接指導を受けているので、日本に留学するよりも幸せだと卒業した先輩たちはよく言っていた。そればかりでなく、中国人の客員教授にも、孫平化、劉徳有、王福祥、劉耀武、万峰、嚴紹湯、王曉秋、程嘯など、中日交流史に名が残る人物や、北京大学、人民大学など中国一流大学の教授の名前が連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だけ中日双方の教授や大家が集まっている北京日本学研究中心だから、当然、全国の日本学研究を志す若者たちの目指す最高学府となる。毎年定員35名(第四次五カ年計画の2000年までは20名)の募集に対して、いつも130名前後の応募者が申し込まれ、一次ペーパー試験(政治・社会、英語、日本語実力、日本学専門、日本事情)と二次面接試験という難関を突破して、中国全土から優秀な学生が集まってきているのである。

もちろん、もっともっと優秀な人材を育成するためには、修士課程ではまだ不十分である。そこで、日本文部科学省と中国教育部の協力を得て、1991年から、センターの卒業生の中から、毎年4名を推薦して、日本の博士課程で更に研鑽を深める制度を創った。そして、2007年春現在まで、17期計68名の学生を派

遣し、その内既に約30名の学生が日本の大学で博士号を取得し、今は日本学
研究の各領域で活躍しているのである。更に、2000年の第四次五ヵ年計画か
ら、センターでも博士課程の学生を募集する制度が出来上がり、今は日本派
遣と現地募集の二本足で、もっとハイレベルな日本学研究の人材を育成して
いるのである。

中国の革命時代に、孫文の率いた軍幹部養成学校である「黄埔軍校」があり、
そこからは後の時代に名を残す人物が輩出していたが、人材育成の意味では、
大平学校と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が、まさに中国の日本語教育・日本研究の
ために中堅となる人材を養成する日本学研究の「黄埔軍校」だとみなしてもいい
のではないかと思う。

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は、上に述べた教育を中心とするセンターであると
同時に、日本学研究センターという名が示すように、研究センターとしての役割
も果たしている。現在は、センターの六つのコース(日本語、日本語教育、日
本文学、日本文化、日本社会、日本経済)に合わせて六つの研究室が設けてあ
り、専任スタッフ13名で、日本から派遣された日本人派遣教授たちと一緒に、
日常の教育活動をすると同時に、研究活動も頻繁に行っている。特に、第三次
五ヵ年計画以来、研究活動の充実をはかり、研究スタッフ各個人の研究活動を
行うだけでなく、研究室を単位とする研究プロジェクトをより活発に展開するよ
うに力を注いだ。現在では、中国の国家社会科学基金プロジェクトにも選ばれ
た「中日対訳コーパスの構築と応用研究」(言語コース)をはじめとする研究プロジェ
クト、『『日本古典文学研究辞典』の編纂』、『20世紀中国における日本文学の紹介・
翻訳に関する通時的研究』(文学コース)、『『現代日本社会の解説』テキストの出版
事業』、『日本社会学名著叢書の翻訳・出版事業』、『日本経済学名著叢書の翻訳・
出版事業』(社会コース)、『近世から近代にかけての中日思想交流に関する研究』(文
化コース)、『『中国における日本語精読授業の研究』(日本語教育コース)など、八つ
の大型研究プロジェクトが実施されている。しかも、どの研究プロジェクトも、セ
ンターの研究スタッフや派遣教授はもちろんのこと、中国ないし海外の研究者との
協力もはかり、より広範囲な研究ネットワークを結ぶのに努力している。

センターの研究スタッフと国内の日本学研究者に、より多くの研究成果を発

表してもらうために、1991年から、センターは『日本学研究』と題する学報を年に一冊発行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の学報の発行は、日本国際交流基金理事長(当時)鹿取泰衛氏が創刊のことばに書いておられるように、「本誌が同センターの紀要として、中国における日本語・日本研究並びに日中文化の比較研究の一層の発展に寄与し、また日中両国に跨る研究者間のネットワークを更に大きく広げてゆく」ことになる。まさに皆さんが期待されているように、『日本学研究』が創刊されるや否や、すぐ中国国内の日本研究者に注目され、中国日語教学研究会会長、中国和歌俳句研究会会長、中国日本史学会会長、北京大学比較文学比較文化研究所所長などをはじめとする、学界の泰斗と尊敬されている一流学者が玉稿を寄せてくれただけでなく、若手や中堅となる研究者も全国から積極的に寄稿してくれた。更に、1997年に刊行された『日本学研究』第6号から、センター修士課程の修士論文の中から優秀な論文を推薦して発表し、中国の研究界によりセンターの教育レベルを知ってもらうよう努力した。

そのほか、『北京日本学研究中心学術専著』のシリーズものを出版し、センター専任研究スタッフ、客員教授、客員研究員、博士課程卒業者の研究成果を世に送り出している(既に刊行されたものは、徐一平『日本語研究』、周維宏『中日農村経済組織比較研究』、王克非『中日近代対西方政治哲学思想的摂取』、王曉秋『近代中日関係史研究』、金熙徳『日米基軸と経済外交』、李国慶『日本農村的社會変遷—富士見町調査』、于日平『現代日語中原因・理由・目的句相関性的研究』、施建軍『漢日主題句対比研究』などである)。特に、センターで編纂した『中国日本学文献総目録』と『中国的日本研究』(日本語版は『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は、現在まで、中国国内で発表された日本研究面での文献と日本研究機関や個人のデータ者を最も多く収録した、日本学研究にあたっては必要不可欠なデータベース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センターをもっと中日両国の研究者が活躍する舞台にしていけるために、1987年から、センター主催の日本学中日シンポジウム(後に韓国やアメリカなどの学者も参加して、国際シンポジウムになる)を行ってきた。2007年現在まで、13回を重ねてきたこのシンポジウムは、中国における日本学研究の一大行事に見なされ、シンポジウムの時期が近づいてくると、センターからはまだ通知を出してい

ないにもかかわらず、今年のシンポジウムは何時行われるか、どんなテーマで行われるかといった問い合わせが殺到するくらいである。特に、2000年9月に、センター設立15周年を記念して行われた「21世紀の日本学の方法—外からの視点—」と題する国際シンポジウムが、日本のノーベル文学賞受賞者大江健三郎氏を記念講演にお招きした効果もあると思うが、会場には600人ほどの聴衆が詰め掛けるという盛況ぶりであった。その後、壇上で行われた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には、中国と日本の学者だけでなく、韓国の翰林大学校日本研究所池明観所長と、アメリカのハーバード大学ライシャワーセンター、アンドリュース・ゴードン所長も加わり、この研究の舞台が、中国、日本から、更に東アジアへ、太平洋を越えてアメリカへと広がりつつあるように感じられた。そして、今年10月20日、21日には、また「東北アジアにおける日本研究」と題する国際シンポジウムが予定されており、既に中国国内と海外からおおよそ150名の発表者の応募があり、更に基調講演者、七つの分科会の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のパネリストを含むと約200名の出席者になる大型の国際シンポジウムになる。

北京日本学研究中心設立当初から、日本国際交流基金の支援の下で、中国における日本学研究的向上に資するために、日本研究(人文社会系)の専門図書を集める図書館の建設に務めてきた。近年、この図書館は民間人からの注目を集め、民間から寄贈されたいくつかの個人文庫も出来上がっている。例えば、高碕文庫(LT貿易の日本側連絡責任者・高碕達之助氏寄贈、故人)、孫平化文庫(中日友好協会会長・孫平化氏寄贈、故人)、大平文庫(元日本首相大平正芳氏を記念するために、大平財団寄贈)、徳川文庫(学習院大学教授・日本国語学会代表理事・徳川宗賢氏寄贈、故人)、小孫文庫(講談社退職編集者・小孫靖氏寄贈)、松村文庫(東京大学教授・松村明氏寄贈、故人)などである。現在、日本語図書の蔵書数は既に17万冊に上り、中国国内における最大規模の日本語図書専門図書館になっている。そして、これらの図書の利用率を高めるために、1998年から、NII(国立情報学研究所)にも協力してもらい、3年間をかけて、所蔵図書の系統化およびコンピュータによる検索システムの構築を行い、2002年3月に完成している。このシステムの完成により、センター図書館の利用者が急速に拡大され、現在では、センターの学生、研究者、派遣教官、客員教授、客員

研究員はもちろんのこと、北京市在住の日本研究者、日本語教育者などにも広く貸し出しサービスを行っている。閲覧は自由に利用されており、卒業論文や修士論文などの作成時期になると、遠く広州、アモイ、長春、大連など、中国全国の各地から、学生がやってきては資料集めの作業に没頭している。

三、近年の日本語研究

中国の日本研究の発展にしたがって、日本語に関する研究も日増しに深まりつつある。特に1980年に『中国日語教学研究会』が成立して以来、全国の日本語教師がその傘下に集まり、日常の日本語教育を進める一方、研究の方にも熱を上げてきた。その意味で、中国の日本語研究は日本語教育の中で成長しているとも言えよう。

北京日本学研究中心と中華日本学会共編の『中国的日本研究(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1997、社会科学文献出版社)によれば、当時調査した全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個人研究者は、1260名で、その中で日本語研究者は463名(日本語教育者を含む)、全員の36.7%を占め、中国の日本語研究者の層の厚さが示されている。

現在、全国的に発行されている日本語関係の専門雑誌は二種類あり、一つは『日本語の学習と研究』(1979年創刊、北京対外経済貿易大学、季刊誌)で、いま一つは『日語知識』(1983年創刊、大連外国語学院、月刊誌)である。その外に、外国語研究を専門とする研究誌、例えば『外語教学与研究』(北京外国語大学)、『解放軍外国語学院学報』(解放軍外国語学院)や『日本学研究』(北京日本学研究中心)などのような学報、紀要などでも常に日本語研究に関する論文が発表され、また、前記『中国日語教学研究会』も不定期的に『中国日語教学研究文集』(2005年現在まで第9集が刊行済)を刊行し、日本語研究者の研究発表の舞台となっている。以上のような研究誌や学報、紀要に発表されている研究論文は、年平均200本近くある。その外に単行本となる研究著書も年に何冊か何十冊かが出版されている。

中国の日本語研究は日本語教育と平行して行われているために、研究者の関

心は、一つの研究ブームに乗って変わるような理論的な研究より、自分の教育現場でぶつかった一つ一つの具体的な問題を如何に解決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あるようだ。

『中国知網』で調べられる『外語類核心期刊』によれば、2005年-2006年に発表された日本語関係の論文は180本(文法74本、教育32本、語彙30本、語用論12本、翻訳9本、文字表記、文化言語学、計算言語学3本、音声、修辞、社会言語学、一般言語学1本)(そのうち『日語学習与研究』は125本)。

その中で、ホットな話題として、以下のような幾つかの大きなテーマに分けられる。

a、認知言語学的なテーマ

『时间顺序原则与日语语序』、『关于“一時”分句中“時”的认知』、『日语时空表达初探』、『从汉日对译看汉日语认知模式之差异』、『汉日方位小句的对比研究』、『主观位移表达的日汉对比研究』

b、モダリティ研究のテーマ

『试论“(よ)うではないか”的用法』、『疑问与判断的接点』、『“だろう”与“だろうか”在认识情态中的地位』、『关于日语“のだ”句意义的考察』、『日语祈使句探析』、『“してもいい”的基本意义与引申意义』

c、否定表現の研究テーマ

『从中日比较的角度看含有“一”的否定句的句法限制问题』、『表示完全否定的表达方式“一人も～ない”和“誰も～ない”』、『日语テ形进入否定辖域的复句』、『从含“から”的単句否定句的否定焦点看日语动词』

d、主語・主題研究のテーマ

『日语有主语吗』、『语言学理论对“ハ”“カ”的审视』、『主語、主題与叙述句、陈述句的关系』、『中日语言“格”的表达』、『论日语的“ゼロ助詞”及其生成条件』、『日语双重主语句特性分析』、『存在词作谓语的日语双重主语句的成句条件』

e、連体・連用研究のテーマ

「中日文定补状語の類型学特征」、「论汉日英三种语言中多项定语語序の异同」
「论“V+感觉N”结构的定语時態」、「連用修飾成分“N+テ”的語義指向分析」、「日語
連用修飾語兩面性成因の探討」、「关于テ形接續的几个問題」、「修飾体言的数量詞
位移現象分析」、「论ナカヲ句節的格式化現象及其格標識ヲ的功能弱化問題」、「关
于格標識功能弱化的若干考察」

・入賞する研究成果も注目される

孫平化日本学學術奨励基金賞(宋慶齡基金会)

第一屆受賞作品：1998年、華東師範大学徐敏民『戦前の中国における日本語
教育』、廣州外語外貿大学陳訪澤『日本語分裂文とウナギ文の形成』

第二屆受賞作品：2000年、清華大学張威『結果可能表現の研究—日本語・中国語対
照研究の立場から』、上海外国語大学呉大綱『日本語の動詞の時制と範圍の意義』；

第三屆受賞作品：2002年、洛陽外国語学院施建軍『日漢主題文構造対象研
究』、北京外国語大学于日平『現代日本語における原因、理由、目的を表す従属
句に関する総合研究』、大連外国語学院宋協毅『現代日本語の助動詞に関する研
究』、上海外国語大学戴宝玉『ノダとその否定をめぐって』、北京大学彭广陸『中
国語の新語に見られる日本語語彙の受容』。

大森優秀論文賞(中国日語教学研究会)

2002年『日語教学与研究』発表論文を対象：北京外国語大学朱京偉『構造要素
分析から見る中国製漢語と和製漢語』、清華大学張威著『否定辞『ない』について
のミクロ的分析』、華東師範大学高宁『讓病句説話』、杭州師範学院王忻『日語語
氣再考』、広東外語外貿大学楊詭人『論日語語法的対立与連接』、上海外国語大
学許慈惠『日語語義学的詞法研究』。

四、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状

1. 学習者数が増加

1998年25万人→2003年39万人(世界第二位)

増加率は約57%で、日本語教師も五年前の5000人から6000人に増加、教育レベルで分析してみれば、次のような結果になる。

高等教育：学習者95000人から204000人に、増加率113%(学習人口の53%を占める)、

教師2500人から3400人に

初等・中等教育：学習者116000人から79000人に、減少率31%(学習人口の20%を占める)、教師1500人から1100人に

学校外教育：学習者33000人から103000人に、増加率208%(学習人口の27%を占める)、教師1000人から1500人に。

2. 教材の完備と大学院課程の増設

・小学校から大学院までの教材が完備

『小学日語教材』(遼寧少年儿童出版社、2002年)、『日語——義務教育課程標準実験教科書』(人民教育出版社、課程教材研究所、2002年)、『日語——高級中学課本』(人民教育出版社、課程教材研究所、2003年)、『新大学日語』(高等教育出版社、陳俊森ほか、2002年)、『日本学基礎精選叢書』(北京日本学研修センター企画、高等教育出版社出版、教育部により全国大学院共通教材として推薦、徐一平『日本語言』、王勇『日本文化』、李国棟『日本社会』、馮昭奎『日本経済』、王勇ほか『日本歴史』、陳永明『日本教育』、劉建輝『日本文学』<未刊>、郭連友ほか『日本芸術』<未刊>)

・修士課程の拡大と博士課程の増設

日語語言文学の博士課程大学(北京大学、北京外国語大学、東北師範大学、上海外国語大学、吉林大学)。修士課程は50大学に上る。

3. 学習目的の変化

雑誌『人民中国』2004年の8月号に、「じわりと変わる日本語教育」という特集号を組み、北京の大学生を対象に調査

・日本語を学ぶ動機(a.良い仕事ができるため、b.日本の映画・ドラマ・アニメ・漫画・ゲームなどをもっと楽しむため、c.日本語が重要な言語だと思うか

ら、d.日本を理解するため、e.日本が好きだから、f.就職のプラスになる、g.日本と中国の往来が盛んになりつつあるから、h.日本語が勉強しやすいから、i.その他)

・日本語を勉強して将来はどうするつもり(a.日本企業の中国代表になりたい、b.日本に留学したい、c.外交官など公務員になりたい、d.自分で起業して日本とのビジネスを展開したい、e.旅行社の日本語のガイドになりたい、f.日本で働きたい、g.日本語の先生になりたい、h.日本人と結婚したい、i.その他)

4. 今後の日本語教育の課題

- ・社会に役立つ日本語教育
- ・文化理解を促進する日本語教育
- ・地域公用語を目指す日本語教育

五、今後の課題

歴史を振り返ってみた場合、中国は、世界において一番早く隣国の日本を注目し、それを観察、記録、研究する輝かしい一ページがあった。今後の課題を考えるとときに、特に過去の研究と今の現状を正確に認識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この面において、近年来越々かわれわれのためにそのような資料やデータを提供する書物が編纂されていた。例えば、中華日本学会・北京日本学研究中心編『中国的日本研究』、馬興国・崔新京主編『中国的日本研究雑誌歴史回顧与展望』、北京日本学研究中心編『中国日本学文献総目録』、李玉・湯重南・林振江主編『中国的日本史研究』、李玉・夏応元・湯重南主編『中国的中日関係史研究』、林昶著『中国的日本研究雑誌史』などがみなそうである。このように、日本研究全体あるいは各領域における研究の歴史と代表的な研究成果を把握し、その研究の現状とレベルを正しく捕らえた上で、初めて今後の研究方向と研究課題を明確に打ち出すことが出来るだろうと思う。その意味で、今後は引き続きまだ正確に総括されていない領域において、このような仕事を深め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次に、研究の方法などを、時代の発展に従って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今日は既に情報化社会に突入している。インターネットやネットワークを通して、今まで入手できなかった情報を簡単に手に入れ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この場合、中国国内の情報はもちろんのこと、日本からの情報、あるいは他の国や地域の日本研究の情報も取り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意味で、日本研究のグローバル化によって、研究者のレベルと研究に対して、より高い水準が要求されることになる。しかし、残念なことに、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機関では、必ずしもそのような情報ネットワークが既に整っていたとは言えない。世界の研究レベルに遅れないためには、一日も早くそのようなインフラと基礎的な研究ベース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

更に、新しい研究分野、特に学際的な研究分野を開拓し、基礎的な研究を深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今後の研究を発展させるには、非常に重要な二つの側面である。研究が深まるにつれて、その領域だけでの研究や知識だけでは、どうしても狭い研究になってしまう。他の研究領域の研究成果を吸収し、他の領域の学者との交流を深め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自分の研究領域に新たな研究視野が開かれるようなケースはいくらでもある。また、先端的な研究を進めれば進めるほど、その研究領域の基礎的な積み重ねが要求され、それに応えるような積み重ねがなければ、いずれ研究の道も途絶えてしまうのであろう。